
편집 디자인이 중요하다

김철호 · 유토피아 대표

발간 20주년을 맞아 여러 사람들의 이런저런 의견을 듣자는 것이 원고 청탁의 취지일 테고, 그 의견들 중에는 당연히 ‘쓴소리’도 있어야 할 듯하여, 그 동안 필자가 품고 있었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 놓으려 한다.

고백하건대, 필자는 《새국어생활》의 ‘열혈 독자’는 아니다. 또 고백하건대, 필자는 철마다 한 권씩 나를 찾아오는 이 간행물을 들춰 본 기억이 많지 않다. 가장 큰 이유는 먹고살기에 바빴다는 것이지만, 사실 그런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.

솔직히 이야기하면, 필자는 이 간행물의 표지를 처음 보는 순간 안쪽을 들춰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았다. 우선 《새국어생활》이라는 표제의 글씨부터가 전혀 새롭지 않았다. 이런 제목에 이런 내용을 간직한 간행물은 우리나라에(나아가 전 세계에서) 단 하나뿐이다. 그러한 내용상의 고유성은 글자의 꼴, 이른바 ‘타이포그래피’라는 형식상의 고유성으로 나타나야 한다. 그럼에도 이 책은 제목 글씨에서부터 표지의 ‘차례’ 처리 방식에 이르기까지 구태의연한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.

본문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. 큰 제목, 중간 제목, 작은 제목, 본문, 표 제목, 사진 설명 등 각기 자격이 다른 요소들에 할당한 글자꼴들 사이에 뚜렷한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. 그리고 모든 글자의 좌우 폭을 줄이는 타

이포그래피 정책도 필연성을 찾지 못하겠다. 각 쪽 하단의 페이지 숫자 옆에 들어가는 면주(面柱)는 꼭지의 첫 페이지에는 넣지 않는 것이 편집의 상식임에도(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) 이런 원칙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. 이 밖에도 《새국어생활》이 안고 있는 편집 디자인상의 결함은 일일이 꼬집기 힘들 정도다.

어렵게 얻어낸 귀한 필자들의 옥고들을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담아낸다면 내용과 형식이 상응하는 아름다운 잡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.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, 부디 《새국어생활》에 편집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기 바란다.

(이야기 중에 거칠게 느껴지는 대목이 있더라도 혜량해 주시기 바란다. 짧은 지면을 통해 의견을 분명히 밝히려니 다소 직설적인 표현이 나오게 되었다.)